

“송치영의 ‘소공연’은 비리 백화점”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 8대 의혹 제기
青·국회·중기부에 시정 탄원서
감사 신분 이용, 회장 선거 개입
잡지 수익사업 승인 끝살 포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송치영(사진) 회장의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내용을 격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창숙)가 최근 송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화 추진위가 제기한 송 회장 관련 의혹은 스감사 신분을 이용한 회장 선거 개입 정황△선거 지원을 전제로 한 정책△조직 운영 약속 정황△고발·기자회견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행사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선거 개입 주도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언론통제 문제△소상공인 자격 및 회장 피선거권 적합성 문제△잡지 발행 관련 수익사업의 승인 미이행 의혹△'셀프감사(자체감사)' 문제 등 8가지다.

정상화 추진위는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현 송치영 회장의 행위가 연합회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다수의 증언과 확인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3억6000만 원 항암제 약효 40%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9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가 신약의 치료 효과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신약 급여 신속 등재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1회 투약당 3억6000만 원에 달하는 항암제 ‘김리아’ 효과가 40%에 불과한 사례를 강조하며 ‘기적의 항암제’는 허상이라고 밝혔다. 박미나 기자

며 “국정 최고 책임기관인 대통령실에 사안의 중대성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감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7일 ‘소공연 송치영 회장측, 선거 앞두고 변호사비 대납금품 살포’ 제하의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은 내부 감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상화 추진

위는 진정서에서 “증언에 따르면, 송치영 회장은 회장 선거 이전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신분으로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 김종복 전 회장을 직접 찾아가 회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며 “이는 감사에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치영 회장과 김종복 전 회장의 면담 과정에서 김종복 전 회장은 연합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단체장

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송치영 회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학답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 지원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 방향 및 정책적 권한 확대 약속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정관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관련 이해관계 거래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고발·기자회견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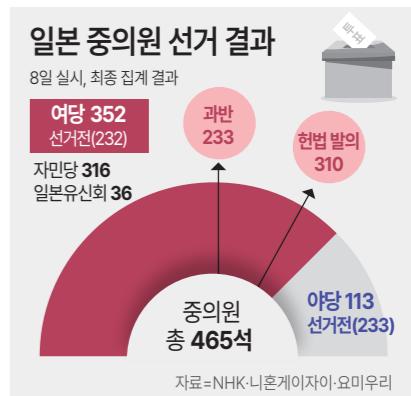
김진강 기자 kjk215@skyedaily.com

日 자민 ‘다카이치 매직’ 의석 3분의 2, 316석 확보

총선 유례없는 압승 ‘역대 최강’

단독 개헌발의 가능… 독주 예고

다카이치 승부수를 통했다.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은 커졌지만 차솟은 인기를 바탕으로 자민당을 부활시켰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316석)을 확보했다. 총리직을 걸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한 다카이치 사나에의 승부수는 대성공이었다. 〈관련기사7면〉



인 3분의 2 초대형 의석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은 “선거 승리가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합의 형성에 힘쓰는 것이 지도자 책무이며 억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 분단을 조장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비 증액, 정보 수집 능력 강화, 개헌 논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SNS)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다카이치 총리를 자민당의 총선 승리를 화무비일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뉴탄친은 9일 “예상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도박에서 이겼다”면서도 “한때의 영광은 순식간에 만인의 비난으로 바뀐다”고 비꼬았다. 신혜정 기자 shy@skyedaily.com

빗썸 ‘쇼크’… 가상자산 시장 신뢰 뿌리째 흔들

관리시스템 엉망… 오지급 파문

“내부통제 막통” 시장 반응 싸늘

당국 “전거래소 점검” 뒷북 대응

빗썸에서 6일 오후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내부통제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즉각 움직였고 빗썸은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보상

과 재발 방지 대책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없는 코인 이 찍힌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그러나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거래소의 체결 구조를 근거로 들며, 결을 달리 봤다. 박 센터장은 9일 본지에 “거래소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상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포인트로 바꾼 뒤 포인트끼리 매매가 일어나는 구조”라며 “진짜 비트코인을 그대로 사고팔면 전송과 확정에

시간이 걸려 지금처럼 실시간 거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출금 때 진짜 비트코인이 나간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고를 ‘없는 코인을 만들어 거래했다’로 단정하기보다, 포인트화된 잔고를 잘못 반영한 실수가 어떤 경로로 매매까지 이어졌는지 통제 장치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이었다. 빗썸은 당첨자에게 현금 2000원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려 했

지만, 담당자가 지금 단위를 ‘원’이 아닌 ‘BTC’로 잘못 입력하면서 일부 이용자 계정에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됐다.

빗썸은 약 20분 뒤 이상 징후를 인지한 뒤 거래 출금 제한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과다 반영된 잔고를 본 일부 이용자가 시장에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는 ‘플레이시크레이시’ 양상이 나타났고, 호가 공백과 비정상 체결이 동반됐다.

이번 사고가 낸 긴장점은 “실수” 그 자체

보다 “가능했던 구조”다. 단위 오입력이라는 단순 실수에서 출발했지만, 전산상 고객 계정에 대규모 수량이 반영됐고 매매 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불안을 키웠다.

빗썸은 사고 이후 고객 자산 정합성을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고, 이미 매도돼 회수하지 못한 0.3%(1788 BTC)는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

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정합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고객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 9일 0시부터 15일 23시59분까지이다.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 빗썸은 이벤트·정책 지급 과정에서 고객 자산과 회사 자

산을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에 2단계 이상의 다중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본질은 내부통제 실패”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없는 자산이 찍힌 것처럼 보인 순간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거래 제한과 보상까지 포함한 대응이 빨랐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앞서 금융위는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가격 급락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FIU-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회의를 이어가며 사태 진행 상황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다뤘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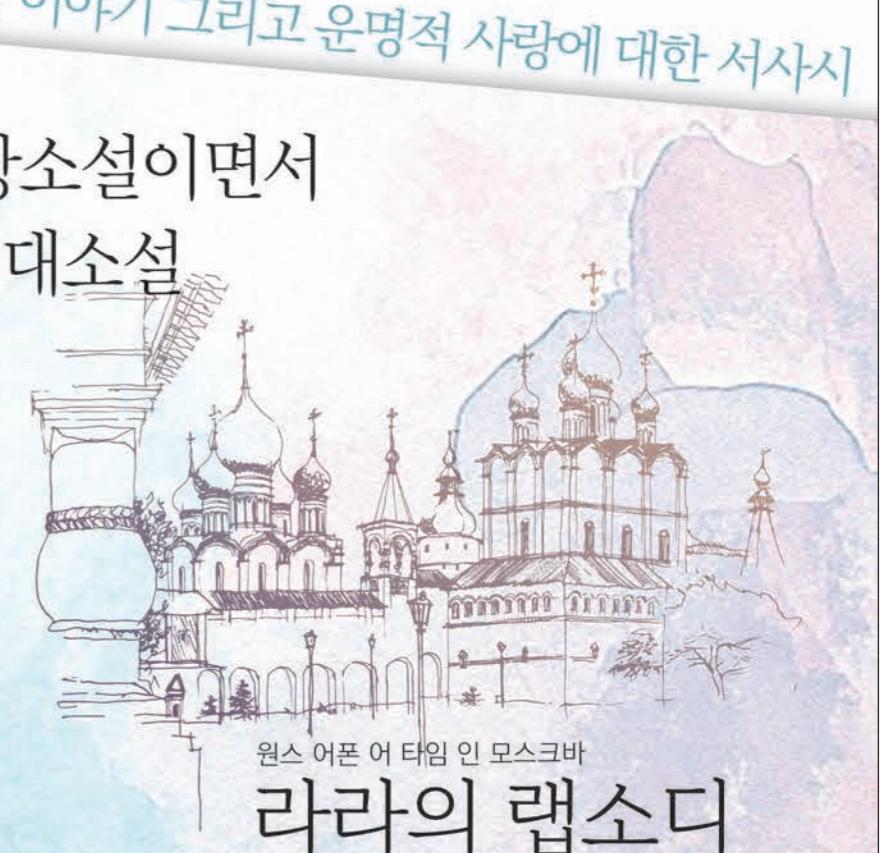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 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